

건강 칼럼

다가오는 겨울방학 ‘치아교정’ 적기… 확인사항은?

학 기 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방학이 되면 부족한 학습량을 채우거나 여행이나 건강 관리 등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겨울방학은 여름방학보다 길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 좋은 시기다. 이런 이유로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치아교정을 목적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검사부터 진단, 장치 부착 등 초기에 내원을 해야 하는 횟수가 많고 교정장치를 착용한 후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아교정은 치열과 교합 등의 상태에 맞게 진행하게 된다. 빼뺀 치열만 교정하는 경우, 발치교정을 해야 하는 경우, 주걱턱이나 돌출입 등의 부정교합 교정 케이스 등 각자의 유형이 서로 다르다. 개개인의 케이스에 맞는 치아교정이 필요한 이유다.

만약 성장이 어린이라면 아직 성장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



박 소 영
배곧 고운이치과 원장

에 교정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치아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기도 하며 그만큼 교정 기간도 단축 가능하다. 무엇보다 영구치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올바른 영구치 맹출 유도도 가능하고, 주걱턱이나 무턱 등 얼굴형 변형이 예상된다면 이를 미리 교정할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 등은 학교나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외모에도 관심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치아교정 시 심미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이는 투명교정 장치로 진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적합한 교정 장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안전한 치아교정을 위해서는 교정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진료를 하는 곳인지 살펴봐야 한다. 치과에는 다양한 분과가 있는데 그 중 교정과 전문의는 치아교정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와 수련을 받은 의료진이다. 이에 자신의 구강 상태, 치열 등에 맞게 체계적인 치아교정을 진행할 수가 있다.

교정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진단과 더불어 진료 시스템 및 첨단 디지털 장비 등이 갖춰진 환경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치아

는 육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면밀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비와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면 정확도 높은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될 수 있다.

치아교정은 초기에 내원을 하는 횟수가 잦고 장치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어린이, 청소년, 수능을 막 마친 수험생들까지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 만큼 본격적인 방학 시즌이 되기 전 치과에 내원해 치아교정을 위한 검진을 받고 치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치아교정은 치료 기간이 길고 고난도 치과 진료에 해당하는 만큼, 치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정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진단 하에 개개인의 구강, 치열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설

의료 망치는 비급여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환자들은 강제보험(건강보험)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하지만, 비급여로 인해 내 진료비가 얼마인지 가능하지 못한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의 위험에서 가입자를 보호한다는 건보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너진 셈이다. 소비자는 잘 모른 채,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하자는 대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선 의사가 제안하는 비급여가 안전하지,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의료 행위에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 단가 등을 보고받아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비급여 항목을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긴 어렵다.

전체 비급여 항목도 추정만 할 뿐,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비급여'라고 통칭하는 의료행위 중에서도 급여 항목처럼 표준 코드가 있는 비급여도 있다. 하지만 없는 것들도 많다.

특히 영양주사·미용·성형 등의 선택 비급여는 정해진 코드·명칭이 없어 분류부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비급여 항목이 얼마에,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알아야 정책도 나올 수 있다.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할 때는 등록·신고를 거쳐야 한다. 필요성이 낮다면 비급여로 가는 대신 가격은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주요 과잉 비급여들은 많은 국민이 인식하는 문제인 만큼 이들 항목에 먼저 시도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라는 인식 때문에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어느 야당 대표의 판결 향방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선거법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이 문제다.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낙선자'라는 점을 재판부는 다만 경감 사유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낙선자에게 공직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시각이다. 선거에서 떨어진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로부터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다.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공직선거법이 당선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낙선한 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는 점과 '백현봉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됐다'는 발언'공소 제기도 문제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진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라는 시각이다.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도 재고해야 한다.

이는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총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다.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갑자기 질문을 받고 한정된 답변 시간 내에 즉석 응답을 하는 경우, 누구든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2심 판결을 지켜보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日 전통술 빚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일본 전통주인 사케 등 일본의 '전통술 빚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고 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전통술 빚기'는 곡물을 발효시키는 데 사용되는 곡물 효소인 '코지'를 포함한 기술로, 세대에 걸쳐 발전해 왔으며 일본 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일본 나가노현 오카야의 한 사케 양조장에서 직원이 켄 쌀에 배양한 효모를 뿌리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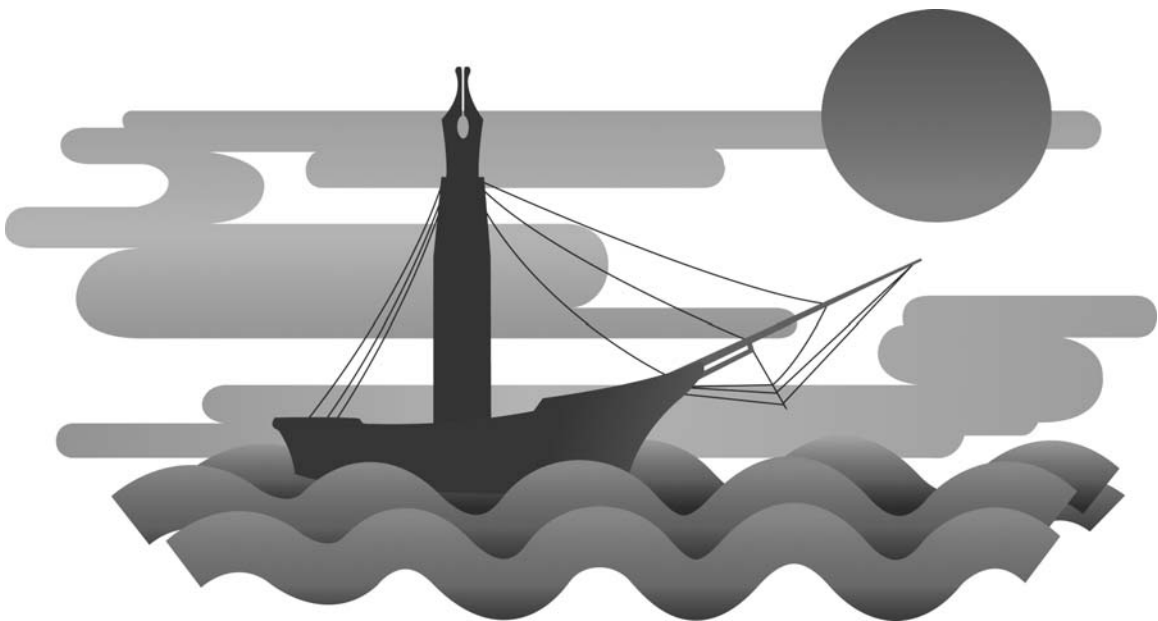
화려하게 불 밝힌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트리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있는 록펠러 재단 앞에서 제92회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열려 5만여 개의 LED 램프로 장식된 크리스마스트리가 반짝이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